

[보도자료] 쿠팡, 울산시에 서브허브 착공 400명 이상 직고용해 동남권 로켓배송 활성화

2024. 10. 15.



쿠팡이 15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쿠팡 울산 서브허브' 착공식을 진행했다.

- 울산 울주군에 착공, 2026년 운영 시작 예정 약 550억원 투자해 5300여평 규모로 건축
- 울산 권역 신도시 등 동남권 로켓망 촘촘해진다 “생활 편의 높여 지역민 정착에 도움”
- 일자리 확대·거주민 정착·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중소기업, 로켓배송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

2024. 10. 15. 서울 - 쿠팡이 동남권에서 '로켓배송' 권역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에 서브허브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 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울산 서브허브가 운영에 들어가면 지역 고용 확대,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15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쿠팡 울산 서브허브'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공하는 쿠팡 울산 서브허브는 쿠팡이 울산에 처음으로 건축하는 물류시설이다. 서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로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한다. 약 5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300여평 규모로 지어지며 약 4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11월에 준공, 2026년 상반기에 운영 시작이 목표다.

쿠팡 울산 서브허브가 담당할 배송권역은 울산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운대구) 와 포항시를 아우른다. 2027년까지 5000만 전 국민 로켓배송 쿠키를 추진을 위한 동남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쿠팡 울산 서브허브 착공식에 참석한 이순걸 울주군수 (사진 오른쪽)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사진 왼쪽)

서브허브 운영은 울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쿠팡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 높은 서비스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로켓배송 가능 지역 확대를 통해 삶의 편의를 높여 지역 거주민의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 남부권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복합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로켓배송을 제공하면 거주민 정착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시와 인접한 지역의 다양한 중소 제조사들이 쿠팡을 통해 전국에 물건을 판매하기 쉬워지면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울산 울주군)은 축사영상을 통해 “이번에 건립되는 울산 서브허브가 영남권의 주요한 물류망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착공식을 축하했다.

홍용준 CLS 대표는 “울산 서브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영남권 중소상공인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전국 각지로 판로를 확대하여 로켓배송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전국을 로켓배송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올초 밝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광주광역시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이어 이번 울산 서브허브 착공 등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물류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전을 포함해 광주, 경북 김천·칠곡·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1만명 이상을 직고용할 방침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